

제주 번영 기원 '삼성사 건시대제 고양부 재단, 지난 10일 삼성혈서 봉행

제주의 번영과 도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삼성사 건시대제가 지난 10일 국가사적 134호인 삼성혈에서 봉행됐다.

삼성사 건시대제는 고·양·부 삼신인의 용출로 탐라 국이 시작된 것을 기려 삼성혈단에서 모시는 제사로 매년 12월 10일 (재)고양부 삼성사 재단 주관으로 봉 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초헌관을, 김황 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아헌관을,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이 종헌관을 맡아 고양부 삼신인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례 봉행에 참여했다.

또한 다케다 가쯔토시 주제주일본국총영사를 비롯 해 부봉하 (재)고양부 삼성사 재단 이사장, 고석근 고



씨 종문회 총본부 회장, 양봉해 양씨 종회 총본부 회 장, 부규진 부씨대종회 회장 등 고양부 삼성 종친 및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 적하고, 바다를 통해 주변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탐 라 천년 해상왕국을 건설한 탐라의 창조 정신이 제주 의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동부 변성근・한승진 - 제주 강봉혁 유공 소방공무원 1계급 '특별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 1계급 특별승 진을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승진은 총 3개 분야로 ▷화재 대응 동부소 방서 변성근 소방장(소방장→소방위) ▷우수 구조대 원 제주소방서 강봉혁 소방교(소방교→소방장) ▷생 명보호 구급대상 동부소방서 한승진 소방장(소방장→ 소방위)이 선정됐다.

변성근 소방장은 다수의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펼쳤으며 신임 교육과정과 소방차량 운전능력 향상반 교관으로 현장대응에 강한 소방인재 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변 소방장은 특히 소방장비 매뉴얼 보급 등 소방장비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무수







한승진 소방장 강봉혁 소방교

행 공적을 인정받았다.

강봉혁 소방교는 인명구조사 교육 교관으로 활동하 며 전문자격 대원 양성에 기여했고 최강소방관 등 전 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제주 대표로 출전해 제주소방 의 역량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한승진 소방장은 특별구급대 및 코로나19 전담구급 대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등 도민 생명보호에 앞 장섰으며, 구급 지도관으로 활동하며 구급대원들의 전 문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송재호 국회의원 '2022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1일 제 주상공회의소에서 '2022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행 사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김일환 제주 대학교 총장, 제주도의원,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 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영상으로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지 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지역 에 필요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도 행안부 특교 43억원을 비롯해 ▷공공 공연예 술연습장 조성 20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100



억원 ▷한경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6억원 등 2023년 제주지역 국비 예산 1조 8528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주요 공약사업도 차질없이 완수해 제주 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3년에도 초심을

갖고 도민과 소통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전 부총장 '한국 교육법학' 발간

제주대학교 고전 부총장(교육법전공)이 최근 '한국 교육법학'(박영사, 710면, 4만9000원) 전문서를 펴냈 다. 이 책은 고 부총장의 '일본 교육법학' (2020 대한 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에 이은 교육법 전문서로서 한 국의 교육법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것 이다.

이 책의 특징은 한국 교육법을 논함에 있어 헌법학 계의 교육 헌법론과 교육학계의 교육법학론을 융합해 교육기본권 중심의 설명을 시도한 점이다. 교육기본 법을 비롯해 현행 주요 교육법을 모두 다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핵심 입법정책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

육법 해설-판례평석-입법 정책 분석을 함께 다뤄 '살아있는 교육법'을 지향 한 점도 특징이다. 책은 교 육기본권 총론, 교육법 각 론, 입법정책론으로 3개 부 와 15개장으로 구성됐다.

고 부총장은 "이 책은 학 교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

자에게는 교육법 현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 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교육법을 연구하려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원생들에게는 이론적 법률적 기초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제품 기획・촬영 원스톱 지원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난 9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 층에 마련된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촬 영과 기획,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표선초·토산초 IB 월드스쿨 현판 제막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초등학교(교장 고희리)와 토산 초등학교(교장 현미옥)는 지난 9일 김광수 제주도교 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본부의 'IB PYP 월드스쿨' 승인에 따른 인증 선포식과 현판 제막식을 잇따라 개최했다. 두 학 교는 2020년 9월 IB 관심학교 등록 이후 월드스쿨 인 증기준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춰 왔다.



제주대 제59회 세무사 시험 5명 합격

제주대학교는 한국산 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22년 제59회 세무 사 자격시험에서 재 학생과 졸업생 등 총 5명이 최종 합격했다 고 11일 밝혔다. 합격 자는 김동욱(회계학 과 09학번), 고경희 (전산통계학과 14학 번), 김도원(회계학 과 15학번), 임철우 (회계학과 15학번), 양혜미(회계학과 16 학번) 씨다. 이에 따



라 제주대 출신 세무사는 현재까지 52명에 이르며, 이 중 회계학과 출신은 38명이다.

제주대는 경상대학 고시반을 운영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강좌 수강료, 수험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 김장 나눔

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1호 자회사 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주)는 지난 9일 연 말을 맞아 서귀포 지역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에 게 전달할 '행복 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장에는 행복공작소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플 러라 푸 대표이사와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 지사장 및 직원들도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행복공작소 내 행복농장에서 장애인 직 원들이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선물로 전달했으며 올해 수확한 마늘・ 양파·호박 등 1400kg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도 했다.

